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화비평 프로젝트: 씨네로 비평문집

이런 것도 비평이라고

고려리뷰비평이라고

비평에 앞서	05	씨네로는 영원하다!	지니
	08	언젠가 낯익은 곳에서	홍시
	11	기쁨	코나
<hr/>			
이런 것도 비평이라고	13	〈코다〉와 아카데미 그리고 감동	히치
	17	한국영화는 정말로 위기인가?	
	22	〈돈 룩 업〉, 미국에선 졸작 한국에선 수작인 이유	
<hr/>			
	26	거짓이라는 진실 〈트루먼 쇼〉	코코
	29	주체적 삶과 자아를 찾는 여정 〈내 몸이 사라졌다〉	
<hr/>			
	35	울타리는 넘으라고 있는 것 〈코다〉	준서
	39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외계+인 1부〉	
	44	결과는 알지만, 결말은 모른다 〈내 몸이 사라졌다〉	
<hr/>			
	49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코다〉	열매
	53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나 〈성적표의 김민영〉	
	57	우스꽝스럽지만 현실적인 이야기 〈돈 룩 업〉	
<hr/>			

세계로 가는 영웅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영화비평 프로젝트 : 씨네로(路)]를 진행하면서 4명의 새로운 청소년들과 또 한 번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흔한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만남의 기회에 열매, 코코, 히치, 준서라는 4명의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어 너무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제 수업의 경우에는 영화비평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연출, 편집, 시나리오, 미장센 등 영화이론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든 어디서든 배워보지 못했던 이론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밤새워 PPT를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수업했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그러한 시간이 힘들기보단 오히려 보람으로 가득했기에 벌써 그림기까지 합니다. 저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당장 자신의 글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각별한 배움의 기억들이 훗날 밑거름이 되어 유용하게 잘 활용될 것이라 믿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동적인 활동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마지막 시간 즈음에 성과공유회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아니, 이럴수가! 그간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활기참을 보고 있자니,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친구들과 재미없는 수업이나 하고 있었구나 하는 후회스러움이 문득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묵묵했던(?) 친구들이 언뜻언뜻 뻗었던 말들이 더욱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같아요.

앙드레 바쟁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였던 히치와의 대화나,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코코의 유쾌한 말들, 늦더라도 꼭 참석해서 수업자로 알뜰히 공유해달라 했던 열정적인 열매, 그리고 밤을 새워 글을 써본 게 처음이었다는 성실한 준서까지! 사실 길잡이도 밤새 머리카락 쥐어뜯으며 힘겨워하는 것인 비평인데 청소년들은 오죽했을까 싶어요. 뒤늦게 미안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모든 아쉬움과 미안함을 만회할 수 있는 생기 넘치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준비해보고 싶네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영영 이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준 열매, 코코, 히치, 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해준 분위기메이커 코디네이터 코다, 마지막으로 저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청소년들에게 담백 정을 주고 만 홍시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아쉽지만 눈물 꼭 참고(혹시 언니 T야?) 웃는 얼굴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봐요.

씨네로는 영원하다!

언젠가 세계의 낯익은 곳에서

클 홍시(김진아)
광주영화비평지 <신1980>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제 스테프, 관련 기관 실무자,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해왔다.
재미있는 영화보다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노리들과 비대면으로 인터뷰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실은 말도 못 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이군 하고 걱정했어요. 서로 떨리는 눈동자와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좋아하는 영화와 지원동기를 듣던 그 순간부터 떨림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얼른 만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첫 수업 때는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주제로 각자가 가진 호와 불호의 기준, 그 영화가 좋다거나, 안 좋다고 말할 때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토론했습니다. 포스트잇에 키워드나 단상을 적고 붙이고, 재배치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리들은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영화를 이미 ‘비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영화에 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제가 더 배우는 게 많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이후 ‘상업영화와 한국영화산업’,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와중에 광주극장에서 재개봉한 <자전거 도둑>(비토리오 데시카, 1948)도 관람하고, ACC에서 열렸던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도 구경했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는 15차시 동안, 이들이 보다 재밌게 영화를 보고, 말하고, 글을 쓰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개인적으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영화를 짐짓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비평이라고 하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한가운데 놓고 생각하는

일보단, 내 옆에서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펼쳐놓는 술한 사건과 그로 인한
여러 감정 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뉴스를 읽다가 우연히 알아차리는 방식으로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원대한 목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른바 '시네마
향기'가 나는 듯했으니까요. 프로젝트 내내 충분히
즐기며 몰입하던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박준, 2018)에서 시 한 편을 꼽아
적이고 싶어요. 이 책이 나올 때면 우리가 정말 함께
장마철을 지나고 있겠네요. 씨네로 프로젝트 일동
지니, 코나, 열매, 준서, 코코, 히치, 주영, 하비에게,
그리고 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천국〉

결을 떠난 적이 있다 당신은 나와 헤어진 자리에서 곧
사라졌고 나는 너머를 생각했으므로 서로 다른 시간을
헤매고 낯익은 곳에서 다시 만났다 그 시간과 공간 사이,
우리는 서로가 없어도 잔상들을 웃자라게 했으므로 근처
어디쯤에는 그날 흘리고 온 다짐 같은 것도 있었다

우리가 통과한 날들이 다가오는 계절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언젠가 낯익은 곳, 영화로 가는 길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를 코너(코디네이터) 혼자 아늑한 카페 가기, 노래 듣기, 필름카메라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영화비평 프로젝트팀의 다채로운 노력이 담겨있는 영화비평문집 제맛게 즐겨주세요!

날의 따뜻함이 시작되는 4월 초, 저희 영화비평 프로젝트팀이 처음 만났죠. 어색한 공기 속에 설렘이 있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느덧 한여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네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도적으로 얻기 때문일까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까 모르겠어요. 저는 덕분에 영화와 비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엿보고 들을 수 있어 귀한 경험이었답니다.

곧 다가올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몇몇 얼굴들이 떠올라요. 헤어짐에 아쉬워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함께할 때 있는 힘껏 애정했음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낼 힘을 가지고 있고, 헤어짐에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준서, 코코, 히치. 그리고 아쉽지만 중간부터 함께 하지 못한 주영과 하비까지. 삶의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고맙고 기뻐요. 앞으로도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걸 있는 힘껏 애정하며 살아가길. 마음 깊이 바라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영차영차 영화비평 프로젝트를 이끌고 배움을 나누어 준 길잡이 지니와 홍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씨네로’가 되었네요.

모두들 안녕! 이런 것도 비평이라고. ㅎㅎ

이런 것도 비평이라고

션 헤더 감독의 2021년 작 <코다>를 냉철하게 분석하면 보편적인 감동을 담은 영화다. 농인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장애인 루비를 중심으로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이를 극복, 해결하면서 끝나는 스토리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영화이자 성장영화이며 한편으로는 뻘한 신파영화로 분류할 수도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회상 장면이나 가족이 이별하며 이야기가 끝이 나는 감성 넘치는 장면들을 통해 과도하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목에서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다>가 무조건 잘못된 신파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감동적인 장면들의 설득력이 떨어질 순 있어도 말도 안 되게 뜬금없거나 혹은 무리한 방식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는 아니다. 초반부터 중후반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잔잔하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고 후반부터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어색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진정성 있는 감동이 절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사실 <코다>처럼 주인공이 갈등을 마주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며 끝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전개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스토리다. 이 영화에게 작품상을 안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온 고전적 시나리오 양식과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2019년 작품상을 수상한 <그린북>(피터 패럴리)도 그러하고,

1940년대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작품상을 수상했던 <우리 생애 최고의 해>(윌리엄 와일러, 1946)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코다>가 2022년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일찍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한편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 <코다>는 청각장애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농인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시선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 영화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영화를 감상하기 전이나 초반의 스토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만 하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청각장애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수가 되고자 하는 주인공의 성장기’라는 영화의 주제를 보면, 사실상 깊숙이 내재된 영화의 본래 목적은 역경을 딛고 끝내 꿈을 이루는 주인공의 극복기로 인한 감동에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감동을 주는 영화에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전주의적 성향과 그밖에 미국영화 전체에 뿌리내린 전통과 다시금 상통한다. 프랭크 카프라의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1939)와 <멋진 인생>(1946)처럼 순도 99%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다>의 작품상 경쟁작이었던 <파워 오브 도그>(2021) 같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긴 모호한 영화들은 수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면 가볍지만 확실한 감동을 주는 <코다> 같은 영화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았을 것이다.

결국 <코다>는 고전적인 스토리 구조와 감동이라는 절대적 무기로 인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고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작품을 통해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이자 특히나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과 심지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러한 감동을 지닌 대중적 영화를 고평가한다는 점을 이번 <코다>라는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영화는 정말로 위기인가?

2023년 7월 현재, 많은 한국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흥행부진으로 인하여 영화산업이 위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롭게 개봉한 영화들은 흥행하지 못하고 있고 외화들에 크게 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작 한국영화들 또한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제작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이 과연 한국영화의 심각한 대위기일까? 엄밀히 말하면 극장 산업의 위기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오징어 게임>(황동혁, 2021)을 시작으로 한국의 수많은 OTT 콘텐츠들이 흥행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6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좀비물 <부산행>(2016)을 한국에 들여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연상호 감독의 <지옥>(2021)을 비롯하여 <범죄와의 전쟁>(2021), <공작>(2018)의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수리남>(2022) 등. 다양한 한국영화의 거물들이 OTT와 협업하는 추세다. 팬데믹으로 OTT는 수많은 자본을 얻었고, 자본을 이용하여 능력있는 감독들과 작가, 배우들을 두루 섭외하고 있다. 이는 다시 극장이라는 영화 상영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막을 수 없는 운명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화인들이 OTT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극장가는 어떤가? <도둑들>(2012), <암살>(2015) 등으로 천만 감독의 반열에 오른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 1부>는 손익분기점은 커녕 200만도 채우지 못했다.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명량>(2014)의 프리퀄 <한산: 용의 출현>(2022)은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춘 600만 명을 채웠고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2021)도 361만 관객을 동원하며 실패의 쓴맛을 봤다. 비평가와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80년대 한국 현대사를 재구성한 대체 역사물인 <헌트>(2022) 역시 손익분기점 앞에서 미끄러진 상황에서 이 영화들은 모두 팬데믹에 맞서다 장렬히 전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질적으로는 훌륭했지만 팬데믹의 영향과 OTT로의 성황으로 관객몰이에 처참히 실패했다. 이러한 흥행실패는 도미노 효과처럼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질적인 하락을 비롯해 기획과 투자, 제작 등의 축소로 이어진다.

<아바타: 물의 길>(제임스 카메론, 2022)과 <스즈메의 문단속>(신카이 마코토, 2023), <더퍼스트 슬램덩크>(이노우에 다케히코, 2023)와 같은 외화들이 흥행한 것에 비해 한국영화는 성과를 내지 못하기에 영화인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지금은 위기나 침체기가 아닌 안식기라고 말하고 싶다. 팬데믹 전에는 누구나 영화를 가볍게 보려 극장을 찾았다면 팬데믹 시기에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만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극장을 찾는다. 이에 마니아들을 타깃으로 둔 영화들이 더 많은 대중을 타깃으로 제작된 영화들을 앞서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최근까지도 <극한직업>(2019)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2023)이 흥행에 부진했던 반면,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줄줄이 흥행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형국에 극장은 되려 관람비를 올리고 한국영화의 위기라고는 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있다. 그저 현실을 부정한 채 기적을 기다리며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한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다. 오히려 팬데믹 전의 영화산업이야 말로 비정상적으로 관객 동원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 아닌지. 지금이 오히려 정상적인 시기가 아닐까? 2019년 <기생충>(봉준호)의 성공으로 다른 한국영화들까지 더불어 흥행에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위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단지 운명적이거나 필연적인 안식기를 맞이한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 OTT의 K-드라마들을 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영화산업이 아닌 극장 산업의 위기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다. 팬데믹 이전 극장은 한국영화의 비정상적인 흥행을 이용하여 수많은 자본을 독점해 극장 산업에 투자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고 극장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만큼 수익이 축소되면서 이른바 거품이 사라지게 된다. 스포츠에 빗대면 연승을 달리던 팀이 패배하면 그 후유증으로 연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격이다.

그렇게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의 극장 산업은 과도한 수익과 투자로 영화업계가 필요 이상의 대호황을 맞이했던 것이고 비정상적인 대호황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대공황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진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젠가는 꼭 일어났을 필연적인 위기이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영화의 생존 여부가 걸린 절체절명의 대위기처럼 느껴질진 모르나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지금은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안식기 혹은 잠시 부진하는 침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다.

돈, 록업, 업스, 특돈, 특업, 업스, 미국에선 섀도우 미국에선 수작인 이야 한국에선 전제권

클 하치(김영준)

2015년 무거우면서도 비극적인 주제인 경제위기를 특유의 뛰어난 유머 감각을 통해 <빅 쇼트>라는 영화로 완성한 감독이 있다. 바로 아담 맥케이이다. 그는 월 스트리트나 정부와 같은 경제위기의 책임자들을 블랙코미디라는 장르 속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과 딉 체니 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바이스>(2018)에서도 실제 그들이 만든 역사와 사회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경제 시스템<빅 쇼트>을 비판하다가 정부와 이데올로기 체제<바이스>에 대해 비판한 맥케이 감독이 2021년에 내놓은 작품은 바로 지구에 커다란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판타지적인 주제의 영화 <돈 록 업>이다. 이 작품에서도 앞선 작품들과 비슷하게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내는데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결국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다.

세 작품 모두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굳이 비교해보면 오히려 정치적 소재와는 거리가 먼 <빅 쇼트>가 가장 현실적이고 교훈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이스>라는 정치사를 다룬 영화에서는 우익들의 비난을 샀고 <돈 록 업>에서는 판타지 장르를 정치와 연관시키면서 우익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미국 내에서의 평가들이 이러할 뿐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

평론가들에게는 이 작품 모두 호평을 받았다. 예컨대 <돈 룩 업>은 미국의 영화 평가 사이트인 메타크리틱, 로튼토마토로부터 각각 메타스코어 49점, 로튼토마토 신선도 55% 등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나 <<포지티브>> 등에서는 4/5점을 주며 호평했고 우리나라 또한 이동진 평론가와 평소 박하기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가 별점을 3개 반 (3.5/5점)이나 주었다. 이렇게 자국민 미국과 그 외 국가의 평가가 상반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돈 룩 업>은 소행성이 지구에 곧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한 두 명의 과학자가 미 정부에게 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지만 정부는 별일이 아니라며 이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전개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아주 익숙한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데 사회의 위계질서 내에서 갈등, 그러니까 권력층과 일반 국민의 대립 구도를 통해 시종일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귀결된다.

이런 클리셰가 난무하는 뻘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미디라는 장르적 요소 덕분이다. <빅 쇼트>가 그랬듯 웃음을 통해 절묘하게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성공적으로 주입해낸 연출력은 충분히 호평받을 만하다. 그러나 <빅 쇼트>와는 다르게 미국인들의 시선에서 <돈 룩 업>은 그마저도 다소 재미가 없는 영화로

치부되기 쉽다. 권력층을 풍자하는 내용과 형식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든 미디어에서든 수없이 자주 접하고 보았을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정치풍자 개그의 대명사인 'Saturday Night Live'와 같은 TV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돈 룩 업>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한편의 TV쇼처럼 너무나 평범하다. 특히나 자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벗어났거나, 미국 특유의 정치풍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돈 룩 업>과 같은 코미디는 독특해 보이기엔 충분히 흥미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진부함으로 인해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치 이 영화를 본 미국인들은 하늘에 질려서 "Don't look up!"을 외친다면 그 외 국가들은 새로운 하늘을 보기 위해 "Look up!"을 외치는 아이러니를 이 영화를 둘러싼 평가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거짓이라는 진실 〈트루먼 쇼〉

클 코코(박소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꿈을 찾기 위해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살대에서 여러 프로젝트도 참여해보았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클도 자주 써 영화비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쯤 되니 꿈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간 꼭 내 가지관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트루먼 쇼〉(피터 위어, 1998)는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의 이야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꾸며진 거짓된 삶.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중심이 되는 갈등 요소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다는가, 길을 가다 죽은 아버지를 만난다는가 현실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할 각종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트루먼은 모든 건 가짜야!라고 의문스러운 말을 한 뒤 사라진 첫사랑 실비아가 자꾸만 그리워진다. 결국 그녀를 찾아 피지섬으로 떠나려 하는데 친구와 가족 모두 그를 극구 말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점차 트루먼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는 끝내 그동안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친구도 가족도 모두 배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실이라면 좌절할 법도 하지만 트루먼은 TV쇼와 같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당장 벗어나 '진짜 세상'을 찾아 떠나기로 한다. 그렇게 거대한 촬영 스튜디오 출구까지 도달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은 먼저, TV쇼 스튜디오 세상 안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트루먼과 교류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이다. 그에게 공감하고 때론 진심인듯한 감정도 보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만큼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객은 여러 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무정함에 안타까움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그들이 TV쇼를 망치지 않기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모르고 살 때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세계를 깨트리려고 시도한 트루먼의 첫사랑 실비아 같은 인물의 태도는 단연 눈에 띄 수밖에 없다.

〈트루먼 쇼〉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한편의 TV쇼가 되는 거짓된 세상에 산다면 어떨까? 라는 유쾌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영화다. 이를 마냥 이상적인 세계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한층 높아진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라도 내 곁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진실된 존재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TV쇼라는 특별한 배경을 통해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전하는 영화다. 이 모든 설정들은 결국 주인공 트루먼이 강인한 마음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그 거짓된 세상을 벗어나는 과정을 관객이(심지어는 영화 속 시청자까지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주체적 삶과 자아를 찾는 여정 〈내 몸이 사라졌다〉

〈내 몸이 사라졌다〉(제레미 클라핀, 2019)는 잘린 손의 여정을 담아내는 독특한 스토리로 열핏 스틸러나 공포 영화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드라마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다. 이 영화는 잘린 손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대도시를 헤매는 여정과 손의 주인인 나우펠이 사고를 당하기까지의 일들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서사구조다. 앞서 많은 비평가들의 경우, 잘린 손의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필자는 나우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체적 삶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싶다.

나우펠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손바닥으로 파리 잡는 법을 배운다. 측면을 노리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그는 매번 파리가 보일 때마다 시도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이러한 설정은 부모님과 화목했던 순수한 한때의 추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부모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그가 더이상 파리를 잡지 않는 것이나, 훗날 그의 손이 잘리는 주요 원인이 파리라는 것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모님은 어린 나우펠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우펠이 아버지가 선물해준 녹음기를 들고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바람 소리를 녹음하던 중 아버지가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다가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다. 그렇게 나우펠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크나큰 죄책감을 안고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윙윙거리는 파리를 봐도 더이상 잡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그는 낯선 도시의 어느 남남커플에게 입양되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제대로 된 자기 방조차 없는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지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 무기력한 일상에 변화를 줄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날도 어김없이 피자 배달은 엉망진창이라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스쿠터는 고장 나서 배달에 늦었고 피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빌미가 되어 피자를 시킨 가브리엘과 배달원 나우펠은 인터폰을 통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눈다. 건물 35층에 사는 그녀는 그의 변명에 “이곳에서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대꾸한다.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비가 그녀가 사는 곳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두 사람 사이 삶의 격차는 상당하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후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것임을 암시한다.

가브리엘은 이윽고 “바람 소리는 들린다”며 “건물 사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 같다. 꼭 폭풍 속 빙하 위 이글루에 잘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 말에 나우펠은 가장 동요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 살아생전의 행복한 한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바람 소리를 녹음했었던, 마지막 순간의 잔상이 머릿속에 스칠 때쯤 그는 “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리면 안 되겠다”고 말한다. 그녀로 인해 일순간 무언가 깨달게

된 것이다. 먹구름 같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빛줄기가 차츰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는 그녀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을 연결고리를 찾아 나선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과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통해 몰래 그녀를 미행하고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삼촌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숙식하며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발전한다. 이전과 다르게 삶에 활기가 생겨나고 주체적으로 일도 배우고 책도 읽으며 그녀가 말했던 이글루도 만들면서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특별한 목표까지 생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브리엘로 인해 만들어진 목표이자 삶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뜻 주체적 삶처럼 보이나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수동적인 삶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이글루를 만들어 가브리엘에게 선물하는 어느 날, 나우펠은 자신이 예전에 그 피자 배달부였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가브리엘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거리를 둔다. 그렇게 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말처럼, 오히려 그를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테면 술 취해 시비 거는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목공소에 돌아와 작업을 할 때는 파리가 눈에 거슬려 적극적으로 잡으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모습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대가는 치참하다. 파리를 잡다가 절단기에 손이 잘리기 때문이다. 불행에 더 큰 불행이

더해져 영화의 주제 의식은 점점 더 강조되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손이 잘리게 된 비극 이후, 관객들은 나우펠이 다시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행동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반전을 선사한다. 그의 손이 잘리는 것보다 더 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그는 가브리엘이 떠났던 이글루가 설치된 옥상으로 올라가 발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건너편에 놓인 크레인으로 점프를 시도한다. 위태로워 보이는 이런 무모한 행동은 이제부터 그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것이라는 의지의 몸짓처럼 느껴진다. 아슬아슬한 크레인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우주처럼 무한하고 아름답다. 그의 표정도 어느 때보다 한결 평온하다. 마치 여러 불행을 겪고 어렵게 자신만의 진정한 자아(우주)를 찾게 된 사람처럼.

이 영화는 결국 절망적인 순간들을 통해 점점 주체적이게 되는 나우펠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잘린 손의 이야기와 함께 교차로 보여줬던 것일까? 아마도 잘린 손은 나우펠의 또 다른 자아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부모님의 죽음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술한 좌절을 겪고 결국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전개는, 다시 말해 잘린 손이 해부학실의 보관창고에서 탈출해 각종 험난한 상황들을 극복하며 끝내 나우펠을 찾아내가기까지의 여정과 같다. 그렇게 나우펠은 주체적 자아를 찾았고, 잘린 손은 주체적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일부(나우펠)를 찾아 완전체(자아)가 되는 데 성공한다.

결국 이들의 여정은 관객에게 주체적인 삶과
자아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올타리는
넘이라고 있는 것
>큐다<

주인공인 10대 소녀 루비,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역'이다. 가족 중 유일하게 귀가 들리는 청인인 그녀는 농인인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의 통역을 맡아주고 있다. 어업이 주업인 가족들에게 있어서 한평생 통역사가 되어주었던 루비는 그간 별다른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으며, 자신의 꿈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루비는 자신에게 노래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버클리음악 대학 입학의 꿈꾼다. 하지만 '통역사'라는 가족 내 또 다른 역할이 막중했던 그녀는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힘든 상황에 처하며 결국 가족과 큰 갈등에 직면한다. 그러다 뒤늦게 루비의 무대를 보게 된 가족들은 비록 들리진 않지만 그녀의 꿈을 향한 열정과 진심을 응원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로 그녀가 입시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지지한다.

필자가 본 <코다>(선 헤이더, 2021)는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이나 관계 등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루비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이 농인이라는, 운명적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 통역을 해야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소녀다. 루비가 엄마에게 가수의 꿈이 생겼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했을 때, 엄마가 “우리가 눈이 안 보였으면 화가한다고 했겠네?” 라며 그녀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일 때나, 또는 동생 루비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존심 상해하는 오빠와 싸웠을 때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속상한 마음은 들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루비의

가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믿고 의지하는 지극히 견고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화는 이를 통해 가족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메시지를 단단히 전한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만을 다루는 단순한 영화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루비와 같은 합창반이자 그녀의 짝사랑 상대 마일스가 듀엣곡 연습을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한 장면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는 “우리 부모님은 나 혼자서 버스도 못 타게 해서, 그런데 너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다”는 말을 한다. 이 대사에서 마일스는 자신의 가족과 그녀의 가족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계속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루비의 가족에게 장애가 있어도 여느 가족 부럽지 않게 화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편견을 깨트린다. 이는 영화가 '장애'를 소재로 다뤘지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족'인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코다>를 볼 때 중요한 지점은 가족들이 루비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사랑하는 딸이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도구'처럼 그녀를 대하던 초반의 태도에서 그녀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지지하는 태도로 변하는 결말은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주제일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루비의 가족은 이같은 결단을 하기에는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마침내 루비의 가족은 평생 울타리 안에서만 키운 그녀가 처음으로 울타리를 벗어나 드넓은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루비 역시 스스로 음악적 재능을 십분 발휘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노력들(음악 선생님과 방과후 보컬연습, 마일스와의 연습 등)까지 더해 차츰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가족과 루비, 쌍방 간 서로 노력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귀결로써 이 영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비로소 허물어졌을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남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결국 갇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며 극복하라고 있는 것임을 이 영화를 통해 절절히 깨달을 수 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오계+인 1부>

〈외계+인 1부〉(2022)는 웃기지는 않지만 유치한 대사들, 난잡한 시대전환과 스토리 등이 무자비하게 난무하여 몰입을 방해하지만 실상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꽤 재밌는 스토리다. 아울러 세련된 시각효과와 지구를 외계인 감옥으로 만든다는 신선한 소재만 놓고 본다면 볼만하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가드와 썬더는 지구에서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 ‘죄수’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외계인들로, 죄수들은 인간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지만 이들은 흑시라도 인간의 몸에서 각성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죄수들이 생겨날 것에 대비한다. 한편, 1391년 고려 말 무륵과 이안, 흑설과 청운, 그리고 자장은 기묘한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시대의 이야기가 고루 교차되어 펼쳐진다.

최동훈 감독표 맛깔나는 대사는 모두 어디로?

최동훈 감독은 묵직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개성 있는 캐릭터와 맛깔나는 대사로 관객의 흥미를 고조시키는 감독이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타짜〉(2006)와 〈암살〉(2015)에서는 특히나 직접 쓴 명대사들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최동훈 감독의 작품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밋밋하다. 누구에게나 호감일 개성 있는 캐릭터도 보이지 않고 그의 전매특허인 명대사도 거의 없다. 중간중간 관객들을 피식거리게 만드는 짧은 웃음 포인트는 있지만 그리 인상적이진 않는다. 이 와중에 지루하게 이어지는 가드와 썬더의 대화는 오글거리고 유치하기까지 하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대하던 것은

대사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에도 있다. 최동훈 감독은 매력적인 인물을 구축하는 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감독 중 하나다. 〈외계+인 1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흑설과 청운일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이번 작품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캐릭터성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대사는 코믹한 연극처럼 매우 과장된 경향이 있지만 작품에서 이 두 인물을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인물은 없다. 무륵과 이안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가드와 썬더는 말할 것도 없다.

위화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번 작품에서는 〈전우치〉(2009)에서 보여줬던 특수효과보다 한층 더 발전한 기술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캐릭터, 외계인들의 움직임이나, 가드의 외형, 차원을 깨부수는 효과들 말이다. 그러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관객이 쾌감과 희열을 느낄만한 생동감이 부족하다. 아울러 많은 건물을 깨부수고, 카체이싱에 화려한 액션까지 펼쳐지지만 모두 지루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우주선이 지구를 침공하는데도 그다지 임팩트가 없다.

이러한 특수효과의 힘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들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촉수’를 꼽고 싶다. 고려시대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이 시대에서는 도사들이 대놓고 무공을 사용하는데 매우 판타지스러운 연출로 인해 ‘신검’

이라는 신비로운 무기가 등장하더라도 개연성이 있어 관객들은 그다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는 그저 현재의 상황에 외계인의 출현을 더했을 뿐이다. 그래서 작품 속의 주요 장소인 '지산병원'에서 외계인들이 촉수를 사용하여 지구인들의 몸 안에 최수를 가두는 장면에서는 엄청난 위화감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이례적인 크기의 비행선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른 셈인데 그 어떤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출동하지 않고 심지어 뉴스로도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현실세계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등장인물들이 겪는 특수한 사건과 감정에만 집중하여 공감대를 떨어트린다. 이 같은 설정은 관객들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싶다. 결국 이러한 의문들은 <외계+인 2부>가 나와 봐야 확실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플리지 않은 의문만을 남기며

<외계+인 1부>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주며 관객의 머릿속에 오랜 잔상을 남기지 못한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느낌을 주며 시종일관 감독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영화만의 특수한 배경을 친절히 주입하는 느낌이다. 심지어 여러 시간대 이야기의 무분별한 교차와 다양한 주인공들의 등장으로 관객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반면 줄거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과 악의 구분은 매우 확실한데 관객의 뒤통수를 때리는 변수를 창출하는 노력은 없어 재미가 반감되었다. 게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마치 향후 공개될 2부를 위한 하나의 명분 역할만 한 게 아닌가

결과를 알지만, 결말은 모른다. <내 몸이 사라졌다>

클준서(김현욱)

〈내 몸이 사라졌다〉(제레미 클라핀, 2019)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회화적인 화면 전환과 몽타주의 배치 등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생각을 가질 만한 영화다. 화면 전환이 빠르고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편집과 몽타주가 두드러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하며 관객이 여러 가지 해석과 의문을 가지기 쉽다. 예를 들어 영화 시작부터 잘린 오른손이 등장하는데 마치 생명력이 있는 존재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관객은 이 기괴하고 의문스러운 손이 과연 누구의 손이고 어떤 경위로 잘리게 되었는지 궁금증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누구의 손인가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로잘린’(잘린 손)과 ‘나우펠’이라는 청년, 이 두 주인공의 시점을 교차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손등 위의 점 같은 여러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관객은 두 캐릭터의 관계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관객을 놀라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나우펠의 우여곡절의 삶이다. 그의 삶은 과거에는 활짝 만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말라가는 시든 꽃처럼 암울하기만 하다. 이러한 나우펠의 현재와 과거는 영화 중간중간 로잘린 관점의 플래시백을 통해 펼쳐진다. 유년 시절 나우펠은 부모님과 행복할 시간을 보냈으며 근심 걱정이 없던 아이였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낯선 도시로 입양된 후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돈을 버는 와중에 고용주에게는 온갖 구박을 받는다. 불행한 일상에서 나우펠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린 시절 꽃 같던 반짝임을 점차 잃어간다.

반면 나우펠의 잘린 손인 로잘린은 영화 시작부터 뚜렷한 목적을 갖고 나우펠이 있는 곳을 급히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캐릭터다. 잘린 손의 특성상 하수구 안 생취와의 사투를 벌여야 할 만큼 악조건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여러 장애물을 끝끝내 극복하는 통쾌함으로 관객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나우펠을 볼 때 느끼는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잘린은 운이 좋게 어떤 가족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자그마한 손을 살포시 잡아주는 따뜻한 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때 자신과 하나였던 나우펠, 어린 시절의 반짝임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를 대신해서 과거를 그리워한다.

첫 번째로 놀라운 부분이 나우펠의 행복한 과거와 비교되는 불행한 현재라면, 두 번째 부분은 나우펠과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의 관계와 이로 인해 나우펠이 손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우펠은 피자를 배달하다가 우연히 가브리엘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따뜻함에 호감을 느끼고 그 뒤를 미행한다. 딱히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나우펠은 그녀의 삼촌이 운영하는 목공소에 취직하기에 이른다. 이런 스토커 같은 행동이 초중반에 전개되므로 자칫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나우펠의 아픈 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관객은 나우펠이 보여주는 왜곡된 사랑의 방식에 대해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브리엘과의 관계도 점차 발전하고 목공에도 재미를 붙이면서 나우펠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은근히 그를 응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관객이 갖는 기대감처럼 나우펠 또한 희망을 봤을 것이다. 어느 날 나우펠은 용기를 갖고 가브리엘에게 진실과 진심을 동시에 전한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달리 가브리엘은 나우펠이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에 순간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떠난다. 다시 홀로 남겨진 나우펠, 술에 취해 방황한 뒤 돌아온 목공소에서 날카로운 톱날이 달린 절단기를 작동시킨 채로 파리를 잡다가 그만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 장면이 주인공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객에게는 내내 가지고 있던 궁금증과 뭔가 모를 불안감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 된다. 또 이런 사고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장르적 특성상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사고 장면은 너무 자극적이라 관객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든다.

결국 <내 몸이 사라졌다>는 절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나우펠의 삶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그러나 단순히 새드엔딩 혹은 해피엔딩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우펠이 가브리엘과 함께했던 옥상에서 위태롭게 걸터진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 건너편 크레인 위로 뛰는 장면을 통해, 관객은 저마다 다양한 결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인 위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나우펠이 마치 희열을 느끼듯 거친 숨을 내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가 그래도 살아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나우펠의 모습에서 희망보다는 오히려 비극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이처럼 여운을
남기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으면서 나우펠의 미래를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코다>

현재 고3으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간단하게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다. 현재 고3으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간단하게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다. 현재 고3으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간단하게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다.

<코다>(선 헤이더, 2021)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라는 뜻을 가진 영화로 어쩌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접해본 적 있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시선에서 다룰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될까? 그런 영화들은 아마 손에 꼽히지 않을까? <코다>는 바로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주인공 루비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지내는데 루비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청각장애인이다. 우선 감독은 왜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를 청각장애인으로 구성했을까? 여기서 가족들의 성격에 집중해야 한다. 아빠는 독립성과, 의존성이 양면으로 존재하는 한편 엄마는 다분히 의존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또 오빠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세 명의 가족구성원을 통해 감독은 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각자 다른 생각과 성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코다'인 만큼 비장애인인 자식이 장애인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두루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충분히 보여준다. 부모님의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해 루비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펼칠 수 없는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비장애인 자식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린다. 이 외에도 가족구성원이 자신을 빼고는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도 빼놓지 않는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이어폰을 쓸 수 없다는 일종의 규칙은 루비의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루비는 학교에서도 걸돈다. 장애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과 학교 그 어느 곳에도 온전히 깰 수 없는 루비의 일상. 그나마 개 중에서도 즐거움은 있는데 바로 짝사랑 하는 '마일스'이다. 루비는 마일스가 동아리 활동으로 합창단을 선택하는 걸 보고 따라 입단한다. 아마도 짝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루비가 합창단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마일스를 넘어서 점점 루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열정을 보이고, 가수의 꿈을 좇아 나아가는 모습을 영화는 단계적으로 그려낸다. 그간 가족들을 도와주느라 수업시간에 매번 졸음과 싸움을 할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루비에게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그간 몰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루비가 자신의 능력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목에서는 그 누구라도 코끝이 찡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창부 선생님인 미스터 V의 역할은 상당한데 루비의 조력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루비와 루비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 즉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선과 일치되면서 그로 인해 더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미스터 V는 루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약속 때문에 루비와 거둬 충돌하는데, 결국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면서 루비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게 되는 전개과정이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를 전한다.

결국 <코다>는 루비가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이야기로 그 누구든 공감할 수 있기에 더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나
<성적표의 김미영>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때의 우리 같았으면 좋겠어”

〈성적표의 김민영〉(이재은, 2022)에 등장한 대사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과연 우리가 살면서 맺은 관계 중 좋은 관계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술한 관계를 만든다. 가장 먼저 부모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겠고 학교에 다니며 맺는 선생님과의 관계 또는 학교 밖에서 맺는 관계 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중 과연 진실된 친구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맺는 관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만드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제목 탓에 ‘김민영’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일 것 같지만, 민영의 친구 ‘정희’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두 사람의 친구인 ‘수산나’까지 합쳐 세 친구의 관계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고등학교 때 비공식 ‘삼행시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다 3학년이 되면서 활동을 중지한다. 누구보다도 끈끈했던 셋의 관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야속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가장 큰 역경이다. 각자 대학 입학과 유학, 그리고 아르바이트 생활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정희가 이 모임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외국에 있는 수산나와 갈등이 생겨 세 명으로 구성된 삼행시 클럽은 결국 와해된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관계를 만들지만 개중에는 소식이 끊겨 어떻게 사는지 모른 채 관계가 끊긴 경우가

많다. 영화는 그런 관계성을 수산나와 정희에 빚대어 보여주며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남은 민영과 정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민영은 대학생활을 하던 중 방학을 맞이해 갑자기 서울 집으로 정희를 초대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전과 다르게 쌀쌀맞은 모습으로 친구를 대한다. 그저 정희에게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한탄만 쏟아놓을 뿐이고 대체로 자신의 대학 성적에 대한 푸념이다. 하지만 정희는 민영과 예전처럼 놀 생각만 했던 터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게 둘의 어색한 침묵과 대화는 정희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해소되는 듯하다. 민영은 정희의 속마음을 듣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재밌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서서히 좁혀지는 것만 같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영이 다시 학교에 성적을 문의하러 갔다는 메모를 보게 된다. 정희는 민영이 없는 틈을 타 집을 돌아다니다 일기장과 비디오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민영의 진솔한 마음과 꿈이 담겨있었고 정희는 그간 자신이 몰랐던 민영의 모습을 접한 것 같아 깊은 생각에 빠진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렀을 때 영화에 대한 인상은 정적인 분위기로 극적 상황이 없어 다소 밋밋할 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민영과 정희의 관계와 그 사이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기 때문에 몰입감을 점차 끌어올린다. 또 두 사람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천진난만한 생각들로 가득 찬, 밝았던

모습들이 담기는데 한때 좋았던 둘의 관계가 점점 커가면서 변하게 되었다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관객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게도 만든다. 과거는 잊고 현실만 마주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좋았던 추억을 잇는다면 이내 오래된 귀중한 관계 또한 점차 틀어지게 된다. 다행히 영화는 이런 깨달음 끝에 틀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설정은 다소 극적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영화의 주된 주제의식을 강조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어쩌면 영화 바깥의 우리 모두, 현실만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할 뿐, 과거의 추억을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우정과 찬란하게 빛났던 순수함을 말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추억이 깃든 관계라는 것을 이 영화가 진득하게 일깨워주는 것만 같다. '나'의 일부분만 보고 성적을 매기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빛을 잃기 전에 오래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치 마지막 장면에서 정희가 성적에 집착하는 민영을 위해 오로지 '김민영'만을 위한 성적표를 만드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냉정한 세상에서 정희가 만든 '김민영의 성적표'는 극 중 정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경단만큼이나 포근하고 따뜻하다. 그렇게 영화의 제목 '성적표의 김민영'이 될 수 있었다.

우선광스럽지만 현실적인 이야기 영특한 돈

〈돈 룩 업〉(아담 맥케이, 2021)은 첫 장면부터 ‘올려다보지 말라’는 제목의 의미와 충돌한다.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제니퍼 로렌스)가 천체 사진을 찍던 중 정체불명의 소행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늘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영화에서 중요한 촉발사건이 된다. 과연 이 소행성의 발견은 지구인에게 행운일지, 불행일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관객의 몰입도를 초반부터 확실하게 끌어올린다.

이후의 전개는 천문학 교수 ‘랜달 민디’(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박사가 이 소행성의 예상 궤도를 계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다. 어느 소행성처럼 지구를 그저 지나갈 줄만 알았건만 그 궤도는 정확히 지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민디 박사는 조수 케이트, 천체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을 급히 찾아간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긴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기약이 없고, 설상가상 국방부 장관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과자와 음료를 10달러씩 받고 팔기까지 한다.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백악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에 관객은 쓴웃음을 짓게 된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심각한 재난 상황을 다소 가볍고 우스꽝스럽게 연출함으로써 현실에 있을 법한 고위직 관료들의 회피하는 태도를 묘하게 비틀며 풍자한다. 거기다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는 말장난이 습관이며 과도하게 수치에 집착하는 인물로 과장하여 설정했는데 이를 통해

숫자와 확률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심각한 일면을 보여준다.

극 중반에는 박사들과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교차편집으로 배치하면서 그 사이사이 대중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진실을 알리려는 자들과 회피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중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다. 박사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에 따라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런 모습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 마치 진실을 말함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며 내세우는 현실 속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영화는 이 두 부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을 대중의 반응을 통해 나타내면서 관객의 공감을 더 깊숙하게 끌어낸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의 말을 믿던 대중이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이 영화의 백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자신이 거짓을 믿도록 선동했다는 배신감으로 생긴 분노를 대중은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표출하면서, 그간 진실을 회피했던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의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을 몰아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때 관객은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날, 박사들은 친구, 가족과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다. 종말 앞에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내면의 불안이 새어 나오는 느낌이라 더욱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다. 마지막에는 민디 박사에게 주변 사람을 버리고 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모습에서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도 된다. 이와 반면 대통령과 주변 최측근은 소행성을 파괴할 계획이 어긋나자 국민들을 저버린 채 미리 준비해놓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박사들의 결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태도라는 점에서 권력층을 풍자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엑스트라로 치부될 법한 대중도 지구멸망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제각기 다른 식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어 작품의 매력이 배가된다는 느낌이다. 작품 속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시대를 풍자하기도 했지만,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 태도 등을 다채롭게 연출하여 캐릭터를 한층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그림으로써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몰입하도록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편집 지니(김수진), 홍시(임의현)

글 히치(김형준), 코코(박소연), 준서(김현욱), 열매(최하영)

디자인 파종모종(양지애)